

# 베트남 남부 옥 에오(Óc Eo) 고대 종교미술의 특징과 의의\*

강 희 정\*\*

- I. 서언: 옥 에오의 지리적 위치와 역할
- II. 옥 에오 유적과 불교조각의 다양성
- III. 옥 에오 힌두 조각의 특징과 연원
- IV. 맺음말

## I. 서언: 옥 에오의 지리적 위치와 역할

베트남 남부 메콩 삼각주 안장(An Giang)성에 위치한 옥 에오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광대한 지역이다(지도).<sup>1</sup> 옥 에오는 그 지리적 위치가 주는 이점으로 인해 이미 기원전 2세기부터 동서 교역의 중요한 항구로 발전했다. 메콩 삼각주의 저지대를 사방으로 연결하는 운하들이 곳곳에 있어서 이 지역은 바다를 통한 해운과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운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바다로 들어온 배가 강과 운하를 통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어

\* 이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2019S1A5C2A01080959).

\*\* 서강대학교 교수

<sup>1</sup> 이 지도는 구글 지도를 필자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도에 표시된 부분이 현재 행정구역상 옥 에오로 불리는 지명이며, 통상 근대 이후 발굴 및 발견이 진행되는 지역은 견장성, 안장성 일대를 포괄하여 메콩 삼각주 전 지역을 옥 에오라고 통칭한다.



〈지도〉 메콩 삼각주와 옥에오 일대

각지로 교역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 옥에오의 지리적 이점이었다. 계절풍을 따라 장기간 항해한 배가 거센 폭풍우나 파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내륙 쪽에 항구가 위치하고 있어서 계절풍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정박해야 하는 배들에게 꼭 필요한 항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은 동남아 최古의 고대국가 푸난(Funan, 扶南)의 지배 아래 있었고, 푸난은 몇 개의 정치 공동체가 모여 이뤄진 연합국가 체제였다. 특히 푸난 후기의 중심지 중 하나인 앙코르 보레이(Angkor Borei) 인근에 있었던 점은 옥에오의 항구로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푸난의 성격과 문화가 그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뒤 옥에오

를 지배한 첸라(Chenla, 眞臘)와 앙코르(Angkor) 제국은 모두 오늘날의 캄보디아에 속했다. 옥에오가 베트남 영토가 된 것은 프랑스 식민지배기의 일이다.

쇠퇴한 항구가 된 옥에오에 주목한 것은 인도차이나 일대를 식민지배했던 프랑스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옥에오의 고대 문명에 주목하고 발굴을 시작했다. 최초의 발굴은 1942년 루이 말레레(Louis Malleret, 1901-1970)가 주도했으며, 그는 이 지역이 로마의 지리서에 나오는 카티가라(Cattigara)라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다. 말레레는 당시 구슬, 토기편, 장신구와 함께 2세기경의 로마 동전을 발견하고 이곳이 프톨레미(Ptolemy)가 말한 카티가라라고 확신했다. 클로디우스 프톨레미(Claudius Ptolemy, ?-?)는 2세기경 인도를 다녀온 선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황금반도(Golden Chersonese peninsula) 동쪽에 카티가라라는 이름의 큰 항구가 있다고 썼다.<sup>2</sup> 옥에오가 카티가라라는 추정은 널리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리암 스타크(Miriam Stark)는 카티가라가 수마트라나 보르네오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수마트라나 보르네오에서 이 시기부터 발달한 항구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아니다. 옥에오가 카티가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옥에오-카티가라’ 설은 그만큼 이른 시기부터 옥에오가 로마에 알려져 있었고, 중국으로 가는 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이자 동과 서가 만나는 교역항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sup>2</sup> William Smith, LLD, Ed.,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Geography* (1854). <http://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Perseus%3Atext%3A1999.04.0064%3AAlphabetic+letter%3DC%3Aentry+group%3D9%3Aentry%3Dcattigara-geo> (검색일 2019.10.16.) 골든 커스노네즈, 즉 황금반도는 오늘날 말레이반도로 추정된다.

옥 에오는 동서 문물이 교류하는 다문화적 성격을 지닌 곳이었다. 일찍이 프랑스 학자 조르쥬 세데스(George Cœdès, 1886-1969)가 지적한대로 기본적으로 인도인들의 대거 이주로 인해 동남아에서 문명이 시작됐으므로 옥 에오에서 발견된 유물 역시 인도 문화를 반영한다. 동남아 최초의 외항(外港)으로 자리한 옥 에오에 가장 먼저 인도인들이 이주하고 자신들의 문명을 일궈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형편이다. 특히 인도 종교는 사상, 의례와 함께 옥 에오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배기인 20세기 전 반부터 발굴이 계속된 옥 에오 각지 유적에서는 불상과 힌두신상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발굴된 조각의 수량으로 미루어 보면, 이 지역에서는 힌두교가 불교보다 더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비슈누상을 비롯한 힌두신상들이 불상보다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옥 에오에서 발견된 조각들을 살펴보고 각 종교 조각에 보이는 인도 미술의 영향에 주목하되 특히 인도 어느 지역 문화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동남아 종교 조각의 출발 지로서 옥 에오의 위상을 검토하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 II. 옥 에오 유적과 불교조각의 다양성

1920년대부터 프랑스 학자들이 주도한 활발한 고고학적 발굴 및 조사로 인해 옥 에오 종교문화의 다양성과 독특한 성격이 많이 밝혀졌다. 메콩 델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옥 에오 유적은 상당히 넓은 곳에 퍼져있고, 대부분의 유적은 넓은 육지에 산포된 상태가 아니라 운하로 연결되는 곳에 흩어져 있다. 대표적인 옥 에오의 유적은 현재의 안장(An Giang), 켄 장(Kien Giang), 동 탐(Dong Thap), 켄 터(Can Tho), 롱 안(Long An), 동나이(Dong Nai) 등 베트남 남부 각지에 흩어져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발굴된 수천 점의 다양한 유물들은 형태의 측면에서나 재료의 측면에서 외부로부터 전해진 영향을 잘 보여주었다.<sup>3</sup> 근대 이전 옥 에오의 성격은 캄보디아 문화가 중심축을 이뤘으나 프랑스 지배기를 전후하여 베트남 문화가 이를 압도하게 되었다. 옥 에오 문화의 특별한 성격은 사실상 기원 전후부터 형성되어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시작된 동서 교류의 핵심 항구로서, 옥 에오에는 인도, 로마, 페르시아, 중

<sup>3</sup> 옥 에오를 포함하여 베트남, 동남아에서의 발굴 성과에 대해서는 Bérénice Bellina, Elizabeth A. Bacus, Thoma Oliver Pryce, and Jan Wissemann Christie eds., *50 Years of Archeology in Southeast Asia: Essays in Honour of Ian Glover* (Bangkok: River Books, 2010) 참조.

국에서 들어온 각양각색의 異文化가 유입되어 근본적으로 생소한 이질적 요소들의 융합과 조화에서 비롯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멀리 인도와 로마만이 아니라 동남아 내부에서 생산된 물산의 교역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옥 에오에서 발견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금화는 잘 알려진 로마와의 교역의 증거이지만 다노이에서 발굴된 동전은 로마나 푸난 화폐가 아니라 중부 미얀마 뿌왕국의 동전이다(도 1).<sup>4</sup>



도 1 동전, 6세기, 금속, 3cm 내외, 베트남 옥에오문화유적관리위원회

미얀마 네피도 국립박물관 소장의 은화들은 중부 미얀마 스리 크셰트라(Sri Kshetra)에서 발굴되었으며 6세기에 미얀마의 뿌(Pyu) 왕국에서 사용된 것들이다(도 2).<sup>5</sup> 이 은화들이 미얀마 중부, 태국 남부 나콘 파툼(Nakhon Pathom), 옥 에오에서 고루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시기 교역에서 기준 화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 2 은화, 6세기, 은 합금, 3cm 내외, 미얀마 네피도 국립박물관

로마와 미얀마의 동전에서 볼 수 있듯이 옥 에오에 세계 각지의 문명이 전해졌지만 종교문화는 인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동남아 여러 지역의 문명이 인도인들의 대거 이주로 인한 인도화(Indianization)를 통해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는 조르쥬 세데스의 지적과 일치한다.<sup>6</sup> 바꿔 말해서 옥 에오의 종교가 인도의 강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은 인도인들이 이 지역에 대거 이주함으로써 인도 종교가 베트남 남부로 이식되었기

<sup>4</sup> 다노이의 동전에 대해 옥 에오 문화유적관리위원회는 푸난의 화폐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다. 한성백제박물관, 『베트남: 옥 에오 문화』(한성백제박물관, 2019), pp. 30-31, 40. 이 책에서는 아라칸 화폐설, 푸난 화폐설을 제시했고, 제작시기도 5세기 중엽, 8세기 이후 견해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는 6세기경의 화폐로 생각된다.

<sup>5</sup> 뿌는 미얀마 최초의 고대왕국이며, 안다만 해에서 에아위디강을 따라 북상하면 다다를 수 있는 곳으로 상당히 내륙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뿌 왕국에서 만들어 쓰던 은화가 옥 에오 등지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다만이 아니라 강을 통한 내륙과의 교역 역시 당시 교역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준다. 최근 이 은화들이 부산에서 전시된 바 있다. 부산박물관, 『미얀마의 불교미술』(부산박물관, 2019), pp. 56-57.

<sup>6</sup> George Coedès, *The Indianized States of Southeast Asia*, ed. Walter F. Vella, trans. Susan Brown Cowi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68), pp. xv-xvii.

때문이다. 처음 인도인들의 동남아 진출은 일시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한꺼번에 동남아로 집단적인 이주를 했으므로 이주는 식민적 진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고 있다. 아마도 당시 인도인들의 진출에는 장거리 이주를 주도하고 지도하는 브라만, 종교지도자, 지식인과 기술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sup>7</sup> 기원 전후, 그리고 약 300년경 두 차례에 걸친 인도인들의 이주는 인도 문화를 동남아 지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고, 초기의 가장 중요한 이주 정착지 가운데 하나가 옥 에오였다고 할 수 있다. 기원 전후에는 흥노와의 마찰로 서북인도가 주요 거점이었던 쿠산족이 중인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많은 인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동남아로 이주하면서 인도인에 의한 동남아 식민화가 이뤄졌다. 살던 곳을 등지고 떠난 인도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브라만 콘딘야(Kaundinya, 混填)가 푸난 현지의 여왕 소마(Soma, 柳葉)와 결혼하고 세웠다는 동남아 최초의 고대국가 푸난의 건국신화가 이를 말해준다.<sup>8</sup> 300년 전후의 인도인 이주는 이와는 다르다. 콘딘야 계열로 계승되던 왕권이 판시만(Fan Shih Man, 范師曼)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푸난에 큰 정치적 변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것에 기반한다.<sup>9</sup> 정치적 변혁은 인도인의 이주에 의해 일어났다고 본 것이다. 동남아로 전해진 인도문화 중에서도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를 포함한 문자, 불교와 힌두교, 인도 철학과 사상, 법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특히 힌두교와 불교는 옥 에오는 물론이고 동남아 전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가운데 일부 이른 시기의 시각자료를 옥 에오 출토품에서 찾을 수 있다.

힌두신상들이 대부분 석조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불교조각들은 힌두교 조각과 달리 목조, 석재, 청동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예들이 발견되어 흥미롭다.<sup>10</sup> 옥 에오에서 발견된

7 高田修, 「東南アジア」, 『佛教美術における「インド風」について -彫刻中心に-』(京都: 佛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團助成研究会, 1986), p. 7.

8 현재 캄보디아에 있던 고대국가 푸난은 동남아 대륙부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으며 그 근거지에서 기원 1세기부터 번성한 문화의 흔적이 발견된다. 콘딘야와 소마의 혼인은 『南齊書』, 『南史』 등 여러 중국사서에서 확인된다. 이를 외지인과 현지인의 각자 이해에 따른 결합으로 간주한 것은 Kenneth R. Hall, *Maritime Trade and State Development in Early Southeast Asia* (Honolulu: University Hawaii Press, 1985), p. 54.

9 이 기록 역시 『南史』, 『梁書』 등에 나온다. 경우에 따라 범사만으로 표기한 곳도 있고, 범만이라고 표기한 곳도 있다.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jok\\_0014\\_0078\\_0070\\_0020](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jok_0014_0078_0070_0020) (검색일 2020. 02. 02). 이것이 3세기경의 일로 알려져 있어 이때로부터 300년경 인도인의 대거 이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동남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碑銘인 보카인(Vo Canh) 석비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1885년 나짱에서 발견된 이 비문은 4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 중에 슈리 마라(Sri Mara) 왕을 언급하고 있는데 세데스는 슈리 마라를 범사만으로 간주하고 이를 동남아가 인도화된 최초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각지에서 이어진 발굴, 특히 옥 에오에서 1세기경의 유물이 대거 발견되어 이미 기원 전후에 인도인들의 이주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George Coedès, 앞의 책, pp. 40-41.

10 옥 에오 지역에서 발굴된 종교조각은 다음 참조. Vo Si Khai, "The Kingdom of Funan and the Culture of Oc Eo", in Khoo, ed.,

불상 중에서도 목조불상은 가장 오래된 유형으로 보인다. 옥 에오 일대에서는 여러 구의 목조 불상이 발견됐으며, 이들은 아시아 전역에서도 가장 오래된 목불로 가치가 높다. 나무를 이용한 목조 불상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었으나 9세기 이전의 불상은 남아있는 예가 매우 드물고 그나마 제대로 남아있는 것은 일본의 불상이기 때문에 옥 에오의 목불은 이른 시기 목조 조각의 유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옥 에오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5세기부터 8세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됐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만 수량이 많지는 않다.

일반적인 불교의 전래는 佛法僧 三寶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니 동남아로의 전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옥 에오에도 인도에서 삼보와 함께 불상이 전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수완나부미(Suvannabhumi)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해졌다는 기원 전후부터 따지면 거의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불상이 전해질 뿐이다. 불교미술 초창기에 제작된 동남아의 불상이 드문 이유는 처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진흙이나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진흙으로 빚은 불상은 미얀마와 태국에 일부 남아있지만 완형으로는 잘 남은 예가 없고, 옥 에오와 캄보디아 다른 지역, 베트남 남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벽돌 건축물이나 스투파 유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소조불상도 구웠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는 습한 기후로 인해 파괴되기가 쉬웠을 것이다. 이 점은 현재 메콩강 삼각주 인근에서 대형 사원 유적이거나 스투파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하다. 잦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큰 강 하구에 퇴적된 삼각주의 변형으로 유구가 보전되기 어려웠던 까닭도 있을 것이다.<sup>11</sup> 인도에서 가져온 조각을 모방하여 진흙이나 나무로 불상을 만들다가 점차 제작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청동제, 석제 불상을 조성하는 식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옥 에오에서 발굴된 사원유구를 보면 돌을 이용하여 건물의 토대를 구축한 경우가 많아서 베트남 중부 참파 지방만큼 벽돌을 활용한 건축이 발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옥 에오에서 발굴된 목조불상은 이 지역 초기의 불교조각에 해당하지만 오랜 세월 늪에 잠겨 있어서 세부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늪의 자연적 속성으로 인해 목불이 썩어 없어 지지도 않았다. 표면이 갈라지거나 마모가 되어 양식적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연꽃이 조각된 원형 대좌 위에 서있는 모습은 분명하게 보인다. 이 일대에서 발굴된 목조불상들은 대개 인체비례가 약 7등신에 이를 정도로 장신인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며, 그 규모로 미루

---

*Art and Archeology of Fu Nan* (Bangkok: Orchid Press, 2003), p. 75.

<sup>11</sup> Lawrence Palmer Briggs, "The Ancient Khmer Empire",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new series*, vol. 41, no.1 (1951), p. 34.



도3 목조불입상, 5세기, 옥  
에오 발굴, 호치민 역  
사박물관

어 보면 애초에 외부에 세워졌거나 높은 첨탑형 건물에 안치되도록 만들었다고 추측된다(도 3).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 보아도 옷주름이 표현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법의를 입은 방식은 인도 날란다 불상과 유사하며 신체 비례와 얇은 법의는 사르나트 계열 불상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 명확하다. 두 팔에서 신체를 따라서 흘러내린 옷 끝단의 흐름도 사르나트 불상과 유사하며, 한쪽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허리를 비틀어 미세하게 삼곡 자세를 취한 모습도 거의 같다. 이러한 불상의 양식은 옥 에오에서 발견된 석조불상에도 이어진다. 목조불상의 예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석조 불상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는 조각으로서 두 다리를 아래로 내려뜨리고 앉은 모습의 의좌상이 있다(도 4).<sup>12</sup> 의좌상은 태국 드바라바티(Dvaravati)의 불상에서 종종 발견되는 유형이지만 옥 에오에서 발견된 의좌상은 이 상이 유일한 예이다.<sup>13</sup> 1916년에 베트남 남부 짜빈(Tra Vinh) 성 손터(Son Tho)에서 발굴된 이 상은 6세기경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왼손은 옷자락을 잡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고, 오른손은 깨졌지만 원래 여원인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커서 비례가 어색한 것은 목조불상과의 차이점이다. 밝은 갈색 사암으로 만들었으며 표면을 잘 마연하여 광택을 내고 내구성을 높인 것은 사르나트 지역 불상에서 흔히 보이는 제작수법이다.<sup>14</sup> 다만 사르나트



도4 석조의좌상, 6세기, 높  
이 57cm, 손터 발굴, 호  
치민 역사박물관

<sup>12</sup> 다리를 아래로 내린 의좌상을 중국의 경우를 들어 미륵상일 가능성을 지적한 예도 있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의좌상을 미륵이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좌라는 형식만으로 미륵의 도상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이다. Nancy Tingley ed., *Arts of Ancient Vietnam: From River Plain to Open Sea* (New York: Asia Society and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2009), p. 148.

<sup>13</sup> 태국에서 발견된 의좌상을 중심으로 고대 동남아 대륙부에서 유행한 의좌상에 대해서는 Nicolas Revire, "A Comprehensive Study of Bhadrāsana Buddha Images from First-Millennium Thai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hai Studies*, Vol. 5 (2012), pp. 91-152.

<sup>14</sup> 조각의 석재 표면을 마연하는 것은 마우리아 왕조에서부터 지속된 방식이다. 이 조각에 쓰인 석재는 돌의 질감이나 색 등에서 사르나트 불상 조각에 주로 쓰인 추나르 사암과 매우 유사한 석재로 보이지만 양식적인 차이가 분명하다.

의 불상들은 통견으로 법의를 입고 있는 것에 비해 손 터의 의좌상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불상의 착의 방식은 사르나트보다 날란다의 불상양식과 친연성을 보여준다. 착의법 만으로 손 터 불상의 양식적 연원을 밝히기는 어렵다. 편단우견의 착의와 의좌상이라는 형식, 옷주름이 없는 얇은 옷은 인도 특정 지역의 영향을 현지에서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에서 의좌상은 석가 설법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자세, 수인의 측면에서 불교조각 형식이 다양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서 의좌상이 적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15</sup>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지만 석가의 생애 가운데 설법을 하는 모습을 재현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사르나트의 설법인 의좌상이 모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양식적으로 손 터의 의좌상과 비슷한 상이 1920~1921년에 캄보디아의 프놈 창격(Phnom Cangek)에서 발견되었다. 이 불상은 프놈 창격에서 베트남 짜빈성 왓 짜판 벤(Wat Trapan Ven)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1938년에 사이공(Saigon, 현재 호치민)으로 이전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도 5).<sup>16</sup> 의좌상과 비슷한 종류의 밝은 회색톤의 사암으로 만들어졌고, 마연으로 인한 광택이 표면에 잘 남아있다. 육계는 의좌상보다 낮아졌고, 나발은 납작하며 굽은 편이다. 신체 비례는 실제 인체에 가까워졌지만 옷주름이 표현되지 않은 얇은 법의는 마찬가지로 있다. 길게 늘어진 귀, 쌍꺼풀이 있는 눈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의좌상보다 양식적으로 좀 더 진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의좌상과 좌상이라는 두 불상의 자세도 차이가 있지만 의좌상보다 훨씬 사실적인 신체 비례와 세부 묘사, 타원형으로 길어진 얼굴, 낮아진 육계, 안정감 있는 좌세 등에서 양식의 변화가 상당히 이뤄졌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식상의 특징으로 미루어 이 좌상이 의좌상보다 늦은 8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 5 석조불좌상, 7세기, 높이 46.5cm, 프놈 창격 발견, 베트남 호치민 역사박물관

따라서 인도에서 조각된 불상을 수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돌을 수입해서 현지에서 가공한 것일 수는 있다.

<sup>15</sup> Nicolas Revire, "New Perspective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Bhadrāsana Buddhas throughout Southeast Asia (7th-8th centuries)", in Mai Lin Tjoa-Bonatz, Andreas Reinecke, and Dominik Bonatz eds., *Connecting Empires and States. Selected Papers from the 13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Archaeologists*, Vol. 2 (2012), pp. 127-143.

<sup>16</sup>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4) p. 99.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6-7세기설과 9세기설도 제시된 바 있다.<sup>17</sup> 의좌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8세기 무렵에 유행한 스리랑카 불좌상의 영향이 일부 보이고, 조각수법이 정돈된 점을 보면 9세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불좌상보다 신체에 양감이 있고, 세부가 부드럽게 묘사된 것은 옥 에오 불상의 특징이다. 대좌의 연꽃잎 가운데 3개에 산스크리트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기증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수리아닷타(Sūryadatta)’라는 글자가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들이다.<sup>18</sup>

위의 두 불상과 양식적으로 매우 가까운 조각이 캄보디아에서도 발견되었다. 옥 에오가 근대 이전에 캄보디아에 속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위의 두 불상과 이 불상의 양식적 친연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966년 캄퐁 스푸(Campong Speu)주 우동(Udong) 뚜얼 따 호이(Tuol Ta Hoy)에서 발견된 이 불상은 밝은 회색빛이 도는 사암이라는 재료도 같고, 크게 오른쪽으로 말린 나발과 긴 귀, 옷주름이 묘사되지 않은 편단우견의 복식에서도 옥 에오에서 발견된 앞의 두 불상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도 6). 이 불상은 운하를 통하여 톤레 샵(Tonle Sap) 호수, 메콩 삼각주 및 앙코르 보레이(Angkor Borei)로 연결되는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일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아마도 남부 캄보디아와 베트남 옥 에오 인근의 불상 제작소에서 조각되어 캄퐁 스푸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옥 에오 지역에서 발견된 다른 불상들도 마찬가지이다. 옷주름이 없는 편단우견의 법의, 고졸미소를 띤 부드러운 얼굴, 크고 납작하게 표현된 나발, 통통한 팔다리를 포함한 양식적 친연성을 보이는 사암제 불상들은 모두 메콩 삼각주의 造佛所에서 만들어 인근 지역으로 보내져 각지의 사원에 봉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도 6 석조불입상, 7세기 전반, 높이 97cm, 프놈펜 국립박물관

<sup>17</sup> 호치민역사박물관 측에서는 이보다 이른 6-7세기 불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 이 조각을 전시한 바 있는 부산박물관에서는 9세기로 추정했다. 부산박물관, 『베트남, 홍강에서 메콩강까지』(부산박물관, 2010), p. 194.

<sup>18</sup> 세데스는 수리아닷타를 수리아, 즉 태양(Sūrya)의 힘과 빛다를 연결시키는 혼성 이름으로 추정한 바 있다. Coëdes ed. and trans., *Inscriptions du Cambodge*, vol.6 (Pari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65), p. 69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p. 101 재인용).

<sup>19</sup> 옥 에오 지방이 운하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내륙까지 배를 이용한 교역이 가능하고, 새로운 미술을 받아들이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부 문명이 빠르게 토착화될 수 있었다. 여전히 내륙보다 종교미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견장(Kien Giang) 성 넨 주어(Nen Chua)에서는 뿔뿔하고 어색하던 신체 표현이 훨씬 부드럽고 유연하게 바뀐 불상도 발견되었다(도 7). 넨 주어는 현지에서 530년경의 유구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견장성 박물관 소장 불입상은 허리를 굽히고 왼쪽다리를 구부려 삼곡 자세를 취함으로써 신체의 율동성과 굴곡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똑바로 선 자세로 만들어진 다른 불입상에 비해 진일보한 감각을 보여준다. 굽고 납작한 나발과 미소 띤 얼굴, 넓은 어깨와 좁은 허리, 옷주름이 없는 편단우견의 법의는 사르나트와 스리랑카 불상 양식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이 불상에 선행하는 삼곡 자세를 한 불입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넨 주어의 불상이 스리랑카 불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 불상의 역동적이면서 생생한 자세와 편단우견의 법의 처리는 인도 날란다(Nalanda) 조각에서 기원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굽타시대 이후 성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란다 승원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날란다 조각의 영향이 옥에오에 미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sup>20</sup>



도 7 석조불입상, 6세기 후반, 높이 60cm, 견장성 박물관

옥에오에서 발견된 불상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금동상이 있다. 역시 옥에오 지방인 롱 슈옌(Long Xuyen)성 봉 테(Vong The)의 링썬(Linh Son) 탑에서 발견된 이 금동불은 한눈에 중국 불상임을 알 수 있다(도 8). 중국 사서에는 『漢書』부터 시작하여 동남아와 중국 간의 교역이 종종 언급된다. 양 지역 간의 교역은 조공의 형식을 취했지만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장거리 교역이라고 판단되며 교역물품 중에는 이와 같은 불상 등의 종교조각과 사리함, 불구 등 신성한 의식을 하기 위한 의례용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sup>21</sup> 링썬 탑에서 발견된 불상은 통견의 법

좋았고, 내륙보다 이른 시기의 조각이 옥에오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앙코르 보레이보다 옥에오가 먼저 중요한 종교미술의 생산지였다고 생각되고 있다.

<sup>20</sup> 주경미, 『날란다의 불교유적과 구법승』, 『미술사와 시각문화』4(미술사와시각문화학회, 2005), pp.128-165.

<sup>21</sup> 동남아 전체 지역에서 발견되는 종교조각은 힌두교 신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미루어 이 시기 동남아에서는 불교보다 힌두교가 우세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동남아 상인과 사신이 중국에 갈 때는 불교용품과 상아 불상, 사리 등을 가져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동남아를 불교문화권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Kang, Heejung, "Kunlun and Kunlun Slaves as Buddhists in the Eyes of the Tang Chinese", *KEMANUSIAAN* Vol.22, No.1 (2015), pp.27-52.



도 8 동조불입상, 6세기 중엽, 중국 남조, 높이 29.3cm, 봉 테 발견, 안장성 박물관

의가 느슨하게 흘러내린 정면 중심의 조각이다. 중국식 옷자락은 좌우로 넓게 퍼져 대칭을 이루며, 반원형 옷주름이 평행선을 이루며 반복되고 있다. 두 손은 중국 6세기 불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與願印과 施無畏印을 하고 있다. 이목구비는 뚜렷한 편이며 눈을 살짝 내려뜨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이 불상을 5세기로 편년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견의 법의를 입고, 두 팔 아래로 좌우 옷자락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점으로 보아 6세기 중엽 東魏 후기 양식을 보여주는 조각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佛祖統紀』가 중요한 참고가 된다. 『불조통기』에는 양무제 재위기인 540년에 푸난의 국왕이 사절단을 보내 조공을 하자 무제가 석가상과 경론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sup>22</sup> 아쉽게도 양무제가 보낸 금동불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고, 링썬 탑에서 발견된 금동불에는 명문이 없다. 양대의 불상은 유존예가 매우 적지만 양무제 당시인 6세기 전반 중국 불상의 양식적 특징으로 미루어 양무제가

보낸 불상 역시 동위양식에 가까운 불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링썬의 불상은 이 시기 동남아에서 제작된 경우가 매우 드문 동조불상인데다 6세기 전반에서 중엽의 중국 불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양무제가 보낸 석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이 불상은 외형적으로 북위의 불상과 유사하다. 하지만 근래 발견예가 늘고 있는 남조의 불상도 북위의 조각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양식적인 골격은 남조와 북조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4</sup> 남조의 불상들이 좀 더 세장하고 비례가 긴 예들이 좀 더 많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미뤄볼 때, 옥에오에서 발견된 불상이 남조 양의 조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에서 수입된 불상이 같은 봉 테 지역에서 발견되어 현재 안장성 박물관

<sup>22</sup> T2035, 49: 351b. 아쉽게도 이 기사는 『양서(梁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sup>23</sup> 이 불상을 중국의 6세기 중엽 불상으로 비정하고 『불조통기』에서 말하는 양무제가 하사한 불상일 것으로 처음 추정된 것은 필자의 다음 글이다. 강희정, 「푸난 불교조각의 연원과 전개」, 『미술사와 시각문화』8(2009), pp. 54-55. 링썬은 영선으로 추정되므로 영선사에서 발견된 조각이라 할 수 있다.

<sup>24</sup> 2008년 남경시에서 발굴된 大通元年(527년)명 금동불을 비롯하여 남경의 불상들은 양끝으로 펼쳐진 옷자락이 좀 덜 날카롭게 표현되었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당시 최신 양식이었기 때문에 통상의 정광양식보다 부드러운 조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경 발견 불상에 대해서는 양은경, 「남경지역 남조 금동불상에 대한 일고찰 - 남경박물관 소장 527년명 불상을 중심으로 -」, 『Journal of China studies』11(2011), pp. 67-98.



도9 동조불입상, 6세기 전  
반, 중국 남조, 높이  
31cm, 봉 테 발견, 안장  
성 박물관

관에 소장되어 있다(도9).<sup>25</sup> 이 금동불은 링썬 탑에서 발견된 불상보다 어깨가 좀 더 좁고 신체의 양감이 거의 없으며, 법의 끝단이 좌우로 넓게 펼쳐져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더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중국의 북위말-동위초 양식 불상으로 보인다.<sup>26</sup> 옷을 입은 방식, 정면 위주의 좌우대칭적인 조각, 신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양감이 없는 불신은 앞 시기인 520~530년대 중국 불상과 같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기후와 복식, 문화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동남아의 조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신체를 가리거나 두꺼운 옷을 입고, 옷 자체의 조형성을 중시하며, 옷주름의 선적인 흐름을 강조하는 것은 동남아에서는 볼 수 없는 전통이다. 따라서 안장성 박물관 소장의 불상 역시 중국 남조에서 푸난으로 보낸 조각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두 구는 옥 에오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불상들이 인도 사르나트 계열의 불상 양식을 그대로 따라 인체의 굴곡과 움직임은 반영하는 얇은 옷을 편단우견 형식으로 입고, 옷주름을 묘사하지 않은 것과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인체를 비교적 양감이 잘 드러나게 적극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이 목구비에서는 인도인보다는 현지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하고 있는 점과도 대조적이며, 이 목구비의 표현도 중국 불상에 가깝다. 인도인의 거주공동체가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옥 에오에서 인도 조각의 영향을 받은 불상을 만드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중국 불상을 모델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南齊에서 梁에 걸쳐 6세기 전후에 빈번하게 이뤄졌던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푸난에 전해진 중국의 불상이 현지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옥 에오 지역이 서쪽으로는 서아시아와 인도, 동쪽으로는 중국과 행한 활발한 교역의 중심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sup>25</sup> 1944년, 1998년에 발굴이 이뤄진 봉 테 고꺼이 치(Gò Cày Tí)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한성백제박물관, 앞의 책, p.181.

<sup>26</sup> 정면 중심의 좌우로 뻗은 옷자락이 무겁게 늘어져 삼각형을 이루고 평면이 납작하게 양감이 없으며, 인체의 굴곡이 표현되지 않은 양식을 흔히 일본에서 正光양식이라 불렀다. 옥 에오에서 발견된 두 구의 불상은 정광양식(520년대 전후)을 반영한다.

### III. 옥 에오 힌두 조각의 특징과 연원

6·7세기 동남아에서는 불교조각보다 힌두교 조각들이 더 많이 조성되었고, 이는 옥 에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발견되거나 발굴된 옥 에오의 조각 중에는 힌두교 신앙이 훨씬 많고 신들의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많이 발견된 신은 비슈누이기 때문에 비슈누 신앙이 이 시기에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비슈누 신앙의 유행은 푸난을 비롯하여 대륙부 동남아로 이주한 인도인들 가운데 비슈누를 섬기는 무리들의 집단 이주가 옥 에오 일대 종교문화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힌두교는 쉬바, 비슈누, 브라흐마의 3대 신을 모시는 종교라고 알려졌으나 역사상으로 파괴의 신 쉬바를 숭상하는 쉬바파, 인간과 세계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해 각종 화신이 되어 세계를 구원하는 유지의 신 비슈누를 믿는 비슈누파의 두 신앙이 핵심이다. 민간신앙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힌두교가 교리와 체제를 갖추어 종교적으로 급성장한 것은 굽타시대인 4세기 이후의 일이다.<sup>28</sup> 4·5세기는 인도에서도 힌두교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때로서 중부 및 남부 인도의 여러 왕국에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힌두교를 택한 왕들의 후원으로 각지에 힌두교 사원과 석굴들이 조영되기 시작하던 때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동남아로 이주한 사람들은 굽타시대 힌두교의 성격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동남아로 이주하여 비슈누를 신앙했고,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의 흔적을 대륙부 동남아 각지에 남겼다. 7세기 이후에는 쉬바를 모시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어 많은 사원과 성터에서 링가와 요니를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의 동남아 힌두교도들은 비슈누 신앙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특히 키가 작고, 어깨가 넓으며 신체에 괴량감이 있는 비슈누 조각은 인도 굽타시대 마투라 조각의 전통을 충실히 반영한 이른 시기의 힌두신상들이다. 반면 얼굴이 가름하고 비교적 키가 크며, 군살이 전혀 없이 날씬한 비슈누상들은 포스트 굽타시대 중인도나 남인도 힌두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 비슈누는 악이 선을 이기는 미래가 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신으로 알려졌다. 미투나(mithuna)처럼 남녀를 같이 표현하는 전통이 있는 인도에서 비슈누는 부인 락슈미, 乘物

<sup>27</sup> 동남아의 고대 조각에 대해서는 강희정, 「고대 동남아 종교미술에 미친 인도 미술의 영향」, 『인문논총』65(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pp. 189-220.

<sup>28</sup> 미첼은 북인도의 굽타, 프라티하라(Pratiharas), 남인도의 찰루키아(Chalukyas), 팔라바(Pallavas) 왕조의 후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지배층의 후원에 따른 것이다. George Michell, *Hindu Art and Architecture* (New York: Thames and Hudson, 2000), pp. 44.

가루다와 같이 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굽타시대에는 단독상이 주류인 것을 보면 당시까지 배우자, 승물과 함께 만드는 전통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늦어도 굽타시대에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힌두교 미술의 양상도 이와 비슷하다. 동남아에서도 현재 발견되는 비슈누상은 소형 단독상이 많으며 락슈미나 가르다는 보이지 않는다. 여신상이 등장하는 것은 빨라도 7세기 이후이며 그전에 만들어진 여신상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중국의 승려 法顯은 399년 인도로 불교경전을 구하기 위한 求法의 여행을 떠났다. 그는 귀국길에 페르시아의 商船을 타고 해로를 통해 스리랑카에서 동남아를 거쳐 돌아왔으며 이때 자신의 경험담을 『佛國記』로 남겼다. 『불국기』에 의하면 법현이 탄 배가 411년 11월 야파제(耶婆提, 현재의 인도네시아 자바 추정)에 기항했을 때, 야파제에는 外道, 즉 힌두교를 비롯한 이교가 번성했고 불법은 그다지 퍼지지 않았다.<sup>29</sup> 이는 법현이 인도네시아에 갔을 당시 5세기 초 동남아의 상황과 의정이 슈리비자야에 갔던 7세기 상황이 매우 달랐음을 말해준다. 7세기 이전의 동남아에서는 불교보다 힌두 신앙이 성행했으며, 이는 굽타시대 인도에서의 힌두교의 급 성장과 연관이 있다. 현재 발견된 유물로 미뤄보면 7세기 이후에도 옥 에오, 베트남 중부 참파(Champa) 등지는 힌두교가 더 우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점은 미얀마, 태국, 말레이 반도 중부 이북에서 불교가 융성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전개된 것이다. 그러므로 6-7세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힌두신상들이 동남아 대륙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베트남 옥 에오에서 비슈누상이 적지 않게 발굴되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동남아의 초기 힌두교 조각은 인도 굽타 시대 비슈누상을 모델로 제작되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동남아에서 발견된 비슈누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상은 태국 남부 말레이 반도 중간에 위치한 차야(Chaiya) 지방과 베트남 옥 에오에서 발견되며, 양식적으로는 인도 굽타의 힌두교 조각 중에서도 중부 마투라(Mathura) 조각의 영향을 먼저 받았다. 이는 불교조각이 사르나트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동남아에서 발견된 이른 시기의 비슈누상은 크게 나누어볼 때, 키가 큰 장신의 조각과 키가 작은 단신 조각 두 종류로 나뉜다. 키가 작은 비슈누상은 인도 마투라 조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인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말레이 반도 중부, 태국 남부 및 중부에서 주로 발견된다. 반면 장신의 비슈누상은 주로 옥 에오를 비롯한 베트남 남부와 캄보디아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이 실제로 장신인 조각도 있지만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균살이 없고 팔다리가 날씬하여 인체가 장신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 특히

<sup>29</sup> 구법승 관련 기록과 법현, 의정의 행로에 대해서는 이주형, 『구법승과 동아시아 불교』(2009), pp. 43-56 참조.

장신형 비슈누상들은 광배처럼 신체 전체를 둘러가며 울타리처럼 조각을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의 다른 힌두 조각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특징이다. 또한 단신의 비슈누상에 비하면 머리에 쓴 보관과 치마인 도티는 아무 장식 없이 매우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유형의 비슈누상들은 굽타시대 인도 조각 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마도 굽타시대에 이어지는 포스트 굽타시대의 신상을 모델로 만들었거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다른 유형의 비슈누상이 유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신의 비슈누상에 비해 현저하게 몸통이 가늘고 다리가 긴 장신형의 비슈누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조각이 베트남 떠이 닌(Tay Ninh) 성 호아 닌(Hoa Ninh)에서 발견됐다(도 10). 현재 호치민 미술관 소장의 이 비슈누상은 4개의 팔 중에 오른팔 하나가 파손된 것을 빼면 상당히 보존 상태가 좋다. 어깨가 넓고 가슴 아래가 좁은 역삼각형 신체의 완성도 높은 조각이지만 얇은 선으로 새기다 중단한 것 같은 하의는 원래 미완성 조각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sup>30</sup> 일반적으로 이른 시기의 동남아 비슈누상은 4개의 팔로 각각 철퇴(혹은 곤봉, Gada), 소라(Shankha), 흠덩어리(Bhu), 법륜(Cakra)의 각기 다른 지물을 들고 있는 도상을 보여주며 이들은 통상 비슈누의 속성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알려졌다.<sup>31</sup> 호아 닌의 비슈누 역시 오른손으로 법륜, 왼손으로 소라와 곤봉을 들고 있다. 이 4가지 지물 가운데 ‘지혜의 힘’을 상징하는 곤봉과 법륜, 소라는 인도의 비슈누와 도상이 일치하지만 대지와 창조를 뜻하는 진흠덩어리는 인도 비슈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지물이다.<sup>32</sup>



도 10 석조비슈누상, 6세기, 높이 54.9cm, 호아 닌발견, 호치민미술관

1984년부터 여러 차례 발굴된 동 탐(Dong Thap) 지구 탄 끼에우(Tan Kieu) 고 탐(Go Thap)에서 발굴된 비슈누상은 이 시기 조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도 11).<sup>33</sup> 옥 에오에서 발굴된 비슈누상들이 소형이 많은 데 비해 이 상은 높이가 약 1.5m에 이르는 등신대의 조각이며

<sup>30</sup> 인도 힌두조각에 짧은 도티를 입은 예가 있지만 이는 그보다 후대인 남인도의 예이다.

<sup>31</sup> Nancy Tingley ed., *Arts of Ancient Vietnam: From River Plain to Open Sea* (New York: Asia Society and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2009), p. 146.

<sup>32</sup> 힌두 신의 도상을 규정하는 지물과 승물, 자세는 Jitendra Nath Banerjea, *The Development of Hindu Iconography* (Calcutta: University of Calcutta, 2nd ed., 1956), pp. 112-113, 385-444.

<sup>33</sup> 발굴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James C. M. Khoo, ed., 앞의 책(2003), pp. 54-55.

다른 비슈누처럼 팔이 네 개 있으나 왼팔 하나는 완전히 파괴됐다. 손이 잘려서 지물을 확인할 수 없으나 머리에 쓴 높은 보관과 장식 없는 도티를 입은 모습에서 비슈누임을 알 수 있다. 허리 띠 끈이 대좌까지 길게 늘어졌고, 두 팔 아래로도 지지대가 있으며, 발아래 조각상을 세울 수 있게 긴 꼭지를 만든 것은 분명 동남아 조각의 특징이다. 조각상을 받치기 위한 지지대는 인도의 비슈누상에서 보이지 않는 장치이다. 아마도 지금은 전하지 않는 인도의 청동제 조각을 본떠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sup>34</sup> 옥 에오에서 발굴된 소형의 비슈누상들은 같은 제작소에서 만든 것이 분명할 정도로 같은 유형을 보여준다. 높은 보관에는 인도의 비슈누와 달리 아무런 장식이 없고, 신체와 네 팔의 표현은 정형화되었으며, 도티 사이로 흘러내린 띠와 아래로 내려뜨린 두 손 아래 지지대를 두어 좌우 대칭으로 만들었다. 6~7세기 사이에 조각된 비슈누



도 11 석조 비슈누상 발굴 장면, 7세기, 높이 149cm, 고 탐 발견, 동 탐 박물관

상은 아치형의 지지대를 동반한 캄보디아 초기 조각양식인 프놈 다(Phnom Da) 양식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 이들 모두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늘며, 날렵해 보이는 장신의 신체에 4개의 팔로 각기 다른 지물을 들고 있다.<sup>35</sup> 프놈 다는 푸난 말기의 수도로 추정되는 앙코르 보레이(Angkor Borei)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 일대에서 발견된 미술은 6세기말이 편년의 하한이다.<sup>36</sup> 따라서 프놈 다 양식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는 장신의 비슈누상들 역시 늦어도 7세기 제작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역시 옥 에오 지역의 동 시 마하퓏(Dong Si Mahaphot)에서 발견된 비슈누상 역시 베트남 남부와 캄보디아에서 발견되는 초기의 비슈누상처럼 신체 양 옆으로 지지대를 두었고, 치마를 묶은 허리띠 끈이 길게 아래로 늘어져 조각상을 받쳐주도록 만들었다. 앞의 비슈누 조각과는 달리 발목까지 늘어지는 긴 도티를 입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남인도 조각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처럼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도티를 입은 장신형의 비슈누상은 옥 에오 여러 곳에서 발굴되었다. 그 중에는 청동상도 있어 주목된다. 불과 25cm의 작은 상이지만 현지에서 만든 이른

<sup>34</sup> 본 사항은 단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肥塚隆, 앞의 논문, p. 12.

<sup>35</sup> 프놈 다에서 발굴된 조각상의 양식적 공통점을 지적한 것은 Jean Boisselier, *Tendances de l'art khmèr: commentaires sur 24 chefs-d'œuvre du Musée de Phnom-Penh*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6)에서이다.

<sup>36</sup> 肥塚隆, 「ブレ・アンコール期の彫刻」,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第12卷 東南アジア(東京: 小學館, 2001), pp. 87-88.



도 12 동제비슈누상, 7세기 전반, 높이 25cm, 탄 호이 발견, 호치민역 사박물관

시기 청동비슈누라는 점에서 중요한 조각이다(도 12). 이 동제 비슈누상은 안장(An Giang)성 탄 호이(Tan Hoi)의 탄푸(Tan Phu) 지구 관암탑(Quan Am Pagoda)에서 1944년 발견되었다.<sup>37</sup> 마모가 심해서 이목구비의 윤곽은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으나 얼굴이 작고 오밀조밀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남아에서 발견된 다른 비슈누상처럼 머리에 아무 장식이 없는 높은 보관을 쓰고 있다. 얼굴을 제외하고 신체의 보존 상태는 좋아서 4개의 팔과 각 손의 지물이 잘 남아있다. 두 개의 왼손은 각각 위아래로 소라와 곤봉을 들었고, 아래로 내린 오른손으로 흠뎅어리를 들었다. 위로 올린 손만 지물이 결실되었는데 원래는 법륜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오른손 아래에 있는 지지대는 왼손의 곤봉과 대칭을 이루며,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 허리띠와 함께 비슈누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신체

비례와 양감으로 미루어 7세기 조각으로 판단된다.<sup>38</sup>

옥 에오에서 발견된 힌두신상은 비슈누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쉬바를 상징하는 시바링가 역시 없는 것은 아니다. 힌두교가 발달하던 초기, 인도에서 쉬바는 비슈누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남근형상의 링가(linga)로 만든다. 동남아에서는 7세기 이후 쉬바 링가가 많이 제작되며 중요한 유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안장성에서 발견된 옥 에오의 링가에는 작게 사람 얼굴이 묘사되었는데 이 역시 인도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 특이하게도 비슈누와 쉬바가 한 몸에 깃들어있는 하리하라(Harihara) 역시 옥 에오에서 발견되었다(도 13).



도 13 석조하리하라상, 7세기, 높이 53cm, 옥 에오 문화유적관리위원회

<sup>37</sup> 관암탑은 현지어로 관음탑으로 생각되며 불교 탑에서 비슈누가 발견된 것은 특이한 일이다. Louis Malleret, *L'Archéologique du Delta du Mekong*, Vol.2 (Pari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60), pp. 135-137; Nancy Tingley ed, 앞의 책, p. 156에서 재인용.

<sup>38</sup> 부산박물관에서의 2010년 전시도록에서는 아래로 내린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을 창으로, 제작시기는 3-5세기로 보았다. 부산박물관, 앞의 글(2010), p. 179. 또 은색이 도는 동의 재질로 미루어 전형적인 동남아 청동상과 마찬가지로 주석 함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발견 당시 막자가 공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법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Nancy Tingley ed, 위의 책(2009), p. 156.

조각의 오른쪽은 쉬바로서 머리를 위로 높이 묶었고, 아래편은 보통 짐승가죽을 두르지만 여  
기서는 잘 남아있지 않다. 반대편은 비슈누로 높이 솟은 원통형의 보관을 썼고, 짧은 치마를 입  
은 모습이다.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리하라는 현재 인도에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리하라상이 동남아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며 옥 에오 힌두교 미술의 특수성과 가  
치를 말해준다.

비슈누만큼은 아니지만 링가 외에 동남아에서 비교적  
많이 조성된 것이 여신 두르가(Durga)이다. 인도에서 두르가  
는 황소로 변신한 악마 마히샤(Mahisha)를 무찌르는 강력한 여  
전사 이미지를 지니고 있지만 동남아에서의 두르가는 온화하  
고 평온한 모습을 한다. 짜빈성 루 응옌 안(Luu Nghiep An)에서  
발굴된 두르가가 좋은 예이다(도 14). 비슈누상처럼 여신의 두  
팔 아래 조각을 받치기 위한 지지대를 두었고 이것이 광배처  
럼 머리 위까지 이어져 같은 시기 프놈다 양식 조각과 유사성  
을 보인다. 머리에 쓴 높은 보관과 위로 올린 두 손으로 들고 있



도15 석 조 수리아상, 7  
세기, 높이 89.5cm,  
바티 발견, 호치민 역사  
박물관

는 소라와 범륜은 이 두르가상  
이 같은 시기 비슈누의 도상을  
일부 공유하고 있음을 말해준  
다. 두르가의 신화를 서사 그대  
로 묘사하는 인도의 예와 달리  
여기서 두르가는 단아한 여신일

뿐이고, 이를 두르가라고 알려주는 표지는 그의 발아래 표현된  
황소머리밖에 없다. 어느 신도 이길 수 없었다는 막강한 힘의 소  
유자인 악마 마히샤를 이렇게 순한 물소처럼 표현한 것도 분명  
동남아적인 특수성이다. 가슴 아래 배를 나타낸 두 줄의 가로선  
과 치마 위의 과도무늬는 입체적인 두르가의 조형성과는 다르  
게 치졸해 보인다. 비교적 균형 잡힌 인체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  
불안정한 선각 장식이 이 시기 옥 에오 종교조각의 특징이다. 이  
외에도 옥 에오에서는 인도에서 독립상으로 많이 제작되지 않  
은 태양신 수리아(Sūrya), 여신 데비(Devi)가 발견된 점도 흥미롭  
다(도 15). 안장성 바티(Ba Thi)에서 발굴된 이 수리아는 두 손으



도14 석 조 두르가상, 7  
세기 후반, 높이 102cm, 짜빈  
발견, 호치민 역사박물관

로 연봉오리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남인도 수리아의 도상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도상의 수리아는 드바라바티, 자바에서도 발견되나 남인도에서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옥 에오 힌두교의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동남아에는 6세기 이전에 건립된 사원이나 힌두 신전이 제대로 보존된 경우가 적고, 거대 신전을 건립했다는 근거도 별로 없다. 어느 종교이든 대형사원은 정치권력의 강력한 후원에 의해서 건설이 가능하지만 절대 권력이 아직 약했을 때는 사원의 건립 역시 어렵다. 사원이 잘 남아있지 않은 것은 종교 의식에 적합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종교와 권력의 결탁이 미약한 단계였음을 의미한다. 목조불상 일부를 빼면 옥 에오에서 발굴된 불상이나 힌두 신상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도 이로써 설명이 될 것이다. 옥 에오 지역이 상업적으로 발달한 항구의 요충지였고, 크고 작은 배들로 인해 교역이 번창했지만 운하로 연결된 지역의 특성상 막강한 권력 집중에 의한 통제와 후원은 아직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도인에 의해 이뤄진 동남아 ‘식민’은 현지인과의 타협을 통해 가능했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현지인 전체를 종교적으로 교화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타협이 불가피했던 시기에 대대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든 종교조각들은 인도의 예를 모델로 삼았어도 그와 똑같을 수는 없었다.

종교미술은 개인의 신앙과 집단의 의례를 위한 것이고,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는 인도 사회 체제의 형성은 물론이고, 미술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카스트로 대표되는 엄격한 신분 질서를 유지했던 인도보다 계급에 기반을 둔 사회구성이 느슨했던 고대 동남아에서는 초기의 종교미술이 철저한 종교적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지인들을 위무하는 단순한 우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특히 상업적 교역망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인 옥 에오에서 운하나 강으로 연결되는 지역의 공동체는 규모가 더 작을 수밖에 없고, 종교조각 역시 마찬가지다. 종교시설과 신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지역의 규모, 계급의 분화와 권력의 집중, 종교에 대한 이해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옥 에오에서 다수의 불상과 힌두신상들이 발굴되거나 발견됐지만 대부분 높이가 1m 미만인 것을 보면 옥 에오가 항구로서 번창하고 높은 경제력을 과시했던 시기와 불교 및 힌두교의 발전 시기가 일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옥 에오에 전해진 인도의 종교는 먼저 힌두교가 우세했고 불교는 그다

음이었다. 현지의 종교조각은 늦어도 5세기에는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굴된 예들은 대체로 6-7세기 조각이 대부분이다. 불상은 스리랑카를 거쳐 전해진 사르나트 양식을 기반으로 조각했으며 힌두교 조각을 보면 비슈누 신앙을 중심으로 쉬바나 두르가 신앙도 발달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도상적으로 인도의 모델을 충실히 따랐으나 일부는 현지에 맞게 변형시킨 조각들이다. 사르나트의 조각처럼 표면을 다듬고 마연하여 광택을 주는 등 도상만이 아니라 재료나 조각수법도 인도에서 유입된 방식을 따랐다. 이들 신앙은 굽타시대 인도미술의 영향을 받아 처음 제작되기 시작하여 포스트 굽타 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인도의 힌두 판테온 가운데 옥 에오 사람들이 받아들인 신은 쉬바, 비슈누, 하리하라, 스칸다, 두르가 등이었는데, 인도에는 같은 시기 힌두조각이 적다는 점에서 역으로 옥 에오의 종교조각을 통해 인도 조각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옥 에오의 종교미술이 지니는 의의는 동남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종교조각의 생산지이자 신앙의 발상지라는 점에 있다.\*

\*주제어: 베트남(Viet Nam), 캄보디아(Cambodia), 인도(India), 푸난(Funan), 옥 에오(Óc Eo), 말레레(Maleret), 비슈누(Vishnu), 사르나트(Sarnath)

■ 투고일 2020년 1월 15일 | 심사개시일 2020년 1월 17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월 25일 ■

---

\* 이 논문은 한성백제박물관 2019 국제교류전 <베트남 옥 에오 문화> 전시도록에 게재된 칼럼 “옥 에오의 고대 종교와 미술”을 전면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고 게재를 허락해주신 한성백제박물관에 감사드린다.

## 도판 출처

도 1 동전, 6세기, 금속, 3cm 내외, 베트남 옥에오문화유적관리위원회, 사진: 필자.

도 2 은화, 6세기, 은 합금, 3cm 내외, 미얀마 네피도 국립박물관, 사진: 필자.

도 3 목조불입상, 5세기, 옥 에오 발굴, 호치민 역사박물관  
호치민역사 박물관, 리플렛, p. 3.

도 4 석조외좌상, 6세기, 높이 57cm, 손터 발굴, 호치민 역사박물관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p. 196.

도 5 석조불좌상, 7세기, 높이 46.5cm, 프놈 창격 발굴, 베트남 호치민 역사박물관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p. 99.

도 6 석조불입상, 7세기 전반, 높이 97 cm, 프놈펜 국립박물관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p. 103.

도 7. 석조불입상, 6세기 후반, 높이 60cm, 견장성 박물관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p. 119.

도 8 동조불입상, 6세기 중엽, 중국 남조, 높이 29.3cm, 봉 테 발굴, 안장성 박물관,  
사진: 필자.

도 9 동조불입상, 6세기 전반, 중국 남조, 높이 31cm, 봉 테 발굴, 안장성 박물관,  
사진: 필자.

도 10 석조비슈누상, 6세기, 높이 54.9cm, 호아 닌 발굴, 호치민 미술관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p. 140.

도 11 석조비슈누상 발굴 장면, 7세기, 높이 149cm, 고 탑 발굴, 동 탑 박물관  
Khoo, ed., *Art and Archeology of Fu Nan*, p. 54.

- 도 12 동제비슈누상, 7세기 전반, 높이 25cm, 탄 호이 발견, 호치민 역사박물관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p. 134.
- 도 13. 석조하리하라상, 7세기, 높이 53cm, 옥 에오문화유적관리위원회, 사진: 필자.
- 도 14 석조두르가상, 7세기 후반, 높이 102cm, 짜빈 발견, 호치민 역사박물관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p. 138.
- 도 15 석조수리아상, 7세기, 높이 89.5cm, 바터 발견, 호치민 역사박물관  
Nancy Tingley, ed., *Arts of Ancient Vietnam: From River Plain to Open Sea*, p. 172.

## 참고 문헌

### 1. 한국어 문헌

- 강희정, 「푸난 불교조각의 연원과 전개」, 『미술사와 시각문화』8, 2009.
- \_\_\_\_\_, 「고대 동남아 종교미술에 미친 인도 미술의 영향」, 『인문논총』65, 2011.
- 부산박물관, 『베트남, 홍강에서 메콩강까지』, 부산박물관, 2010.
- \_\_\_\_\_,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박물관, 2019.
- 양은경, 「남경지역 남조 금동불상에 대한 일고찰 -남경박물관 소장 527년명 불상을 중심으로-」, 『Journal of China studies』11,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1.
- 이주형, 「구법승과 동아시아 불교」1, 사회평론, 2009.
- 주경미, 「날란다의 불교유적과 구법승」, 『미술사와 시각문화』4, 2005.
- 한성백제박물관, 『베트남: 옥 에오 문화』, 한성백제박물관, 2019.

### 2. 동양어 문헌

- 高田修, 「東南アジア」, 『佛教美術における「インド風」について -彫刻中心に-』, 京都: 佛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團助成研究會, 1986.
- 肥塚隆, 「プレ・アンコール期の彫刻」,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第12巻 東南アジア, 東京: 小學館, 2001.

### 3. 서양어 문헌

- Banerjea, Jitendra Nath, *The Development of Hindu Iconography*, Calcutta: University of Calcutta, 2nd ed., 1956.
- Bellina, Bérénice, Elizabeth A. Bacus, Thoma Oliver Pryce, and Jan Wisseman Christie eds., *50 Years of Archeology in Southeast Asia: Essays in Honour of Ian Glover*, Bangkok: River Books, 2010.
- Boisselier, Jean, *Tendances de l'art khmèr: commentaires sur 24 chefs-d'œuvre du Musée de Phnom-Penh*,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6.
- Briggs, Lawrence Palmer, "The Ancient Khmer Empire",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new series*, vol. 41, no.1, 1951.
- Cœdès, George, ed. and trans., *Inscriptions du Cambodge*, vol.6 (Pari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65.
- \_\_\_\_\_, *The Indianized States of Southeast Asia*, ed. Walter F. Vella, trans. Susan Brown Cowi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68.

- Guy, John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4.
- Hall, Kenneth R., *Maritime Trade and State Development in Early Southeast Asia*, Honolulu: University Hawaii Press, 1985.
- Kang, Heejung, "Kunlun and Kunlun Slaves as Buddhists in the Eyes of the Tang Chinese", *KEMANUSIAAN* Vol. 22, No. 1, 2015.
- Khoo, K. C., ed., *Art and Archeology of Fu Nan*, Bangkok: Orchid Press, 2003.
- Malleret, Louis, *L'Archéologie du Delta du Mekong*, Vol. 2, Pari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60.
- Manguin, Pierre-Yves, A. Mani, and Geoff Wade, *Early Interactions between South and Southeast Asia: Reflections on Cross-Cultural Exchange*, Singapore: ISEAS Publishing, 2011.
- Michell, George, *Hindu Art and Architecture*, New York: Thames and Hudson, 2000.
- Revire, Nicolas, "A Comprehensive Study of Bhadrāsana Buddha Images from First-Millennium Thai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hai Studies*, Vol. 5, 2012.
- \_\_\_\_\_, "New Perspective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Bhadrāsana Buddhas throughout Southeast Asia (7th-8th centuries)", in Mai Lin Tjoa-Bonatz, Andreas Reinecke, and Dominik Bonatz eds., *Connecting Empires and States. Selected Papers from the 13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Archaeologists*, Vol. 2, 2012.
- Tingley, Nancy, ed., *Arts of Ancient Vietnam: From River Plain to Open Sea*, New York: Asia Society and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2009.
- Vo Si Khai, "The Kingdom of Funan and the Culture of Oc Eo", in Khoo, ed., *Art and Archeology of Fu Nan*, Bangkok: Orchid Press, 2003.

## 국문초록

기원 전후부터 수 차례 이주한 인도인에 의해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의 옥 에오에도 인도 종교와 문화가 전해졌다. 옥 에오의 문화는 베트남 북부와 달리 인도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기원 전후부터 국제 교역항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발굴된 조각은 6-7세기 조각이 대부분이다. 불상은 인도 사르나트의 조각처럼 표면을 다듬고 마연하여 광택을 주는 등 도상만이 아니라 재료나 조각 수법도 인도에서 유입된 방식을 따랐다. 힌두교는 비슈누 신앙을 중심으로 쉬바나 두르가 신앙도 발달시켰다. 도상적으로 인도의 모델을 충실히 따랐으나 일부는 현지에 맞게 변형시켰고, 포스트 굽타 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옥 에오 사람들이 신앙한 쉬바, 비슈누, 스칸다, 두르가는 인도에서 만든 같은 시기 조각이 적다는 점에서 옥 에오의 종교조각을 통해 인도 조각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옥 에오는 동남아 초기 종교조각의 생산지이자 신앙의 발상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Abstract

# Ancient Religious Art from the Óc Eo Civilization in Southern Vietnam

Kang, Heejung\*

The religions and cultures of India were first introduced to the Óc Eo region of the Mekong delta area in southern Vietnam, by several groups of Indians who migrated in the period just before and in the early years of the first millennium. As the area was a developed international trade port, its culture shows strong influences from India, unlike other civilizations that existed in the northern Vietnam. Most sculptures found in the Óc Eo region are dated to the 6th and 7th centuries. The Buddhist sculptures of Óc Eo resemble Indian examples not only in their iconography but also in the material and the finishing technique of polishing the surface to give it sheen, as seen on the sculptures of Sarnath, India. As for Hinduism, Siva and Durga were worshipped alongside Vishnu. Although the people of Óc Eo adhered faithfully to Indian models in iconography, some modifications were inevitable to adapt to the local culture. As only few sculptures of Siva, Vishnu, Skanda, and Durga—the Hindu deities worshipped by the people of Óc Eo—were made in India at the time, it is possible to date the Indian sculptures in comparison with the examples of Óc Eo. The Óc Eo civilization holds its significance as where early religious sculptures were produced and faiths originated in the Southeast Asia.

\*key words\_베트남(Viet Nam), 캄보디아(Cambodia), 인도(India), 푸난(Funan), 옥 에오(Óc Eo), 말레레(Maleret), 비슈누(Vishnu), 사르나트(Sarnath)

---

\* Professor, Sogang University